

새로운 시대의 동반자



송 준 결
한국유업(주) 대표이사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낙후되었던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는 OECD국가로서,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그 위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40~50여년 만에 이룬 쾌거로서 우리민족의 우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부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화의 내통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은 그 만큼 정치적, 문화적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 얼마 전 우리는 건국 이래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탄생시켰습니다. 이제 세계 어느 곳을 가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부끄럽지 않을 만큼 위상과 국력이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빗대어서 이러한 성과들은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이러한 결과들이 과거 우리 선배들의 뼈저린 노력과 인

내의 과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농축산업에 종사하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국민들의 삶을 지탱해 주었던 농축산인들의 땀과 수고는 더 더욱 잊지 말아야 합니다.

1965년 우리나라의 인구는 2천 8백만 명, 이중 1천 6백만 명(57%)이 농업에 종사하였으며 농업에 종사한 그들이 부업으로 소, 돼지, 닭을 열심히 길러 부업이 주업으로 바뀌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우리의 일하는 근성은 4H클럽들을 통해 가축의 개량증식, 목초지 조성 등을 하며 자가 배합사료를 생산케 되었습니다.

연간 7천 톤으로 시작한 배합사료가 오늘날 날에는 1천8백만 톤의 생산, 2억 마리의 가축, 1인당 40kg의 고기 섭취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그 결과 35조원의 축산시장으로 성장 발전케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축산·사료산업에 찾아

온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곡물가격폭등, 한미·EU FTA (Free Trade Agreement)는 축산사료 산업 전반에 걸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인한 축산물 가격 하락은 축산농가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사료 값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가격인하를 요구하지만, 사료업자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료가격 상승은 물론 환율에 의한 부담은 가중되었고, 또한 농가의 수급 및 불량 채권까지 겹쳐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게 마련입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대를 한탄하기 보다는 글로벌 시대 속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민해야 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축산농가와 사료제조사가 서로를 '새로운 시대의 동반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정직과 신용으로 서로를 대하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이윤을 추구하는 개인주의적, 이기주의적 마인드를 지양하고 서로간의 입장을 진정성 있게 고민하고 배려하며 존중하는 상생의 정신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시대에 한 배를 탄 동반자로서 축산농가나 사료제조사 모두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방향을 향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합니다.

“심은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수고한 만큼 거기에 맞는 대가가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함께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상생의 정신을 실천으로 옮길 때,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대로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The best is yet to come.) 상생의 정신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축산농가와 사료제조사는 '새로운 시대의 동반자'로서 제2의 농축산업 전성기를 함께 써 내려갑시다. ☞